

2015년 3월 15일 주일설교
와싱턴 한인교회 김영봉 목사

존 스토틀에게 배우는 제자도 (6)
“혼자만의 구원은 없다” (Salvation is For All)
이사야 1:11-17

오늘 존 스토틀 목사님이 그의 책 <제자도>에서 다룬 여섯 번째 주제는 ‘균형’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하루의 창조를 끝낸 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토브 (tov)’ 즉,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잡고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른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동양철학에서는 공자의 ‘중용’이 이 균형을 설명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그 ‘토브’가, 그 균형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과 극에서 마치 시소를 타듯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토틀 목사님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서 여섯 가지의 비유를 찾아내어 제자가 균형을 잡아야 할 요소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 중에서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균형을 잡기 위해 특별히 시름해야 하는 문제 하나에 집중하려 합니다. 바로 ‘개인 구원 (personal salvation)’ 과 ‘사회 구원 (social salvation)’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을 ‘개인 구원’ 이라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루는 것을 ‘사회 구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 사이에서 심하게 균형을 잃은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믿음이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며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다는 말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선하고 거룩하고 정의롭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원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분리된 상태를 회복하는데 유일한 장애물은 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개인 구원이며 말할 것도 없이 개인 구원은 신앙의 본질이며 핵심이며 동시에 기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은 나 개인의 구원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만을 선별하여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개인이 아닌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성경 안에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불에 태워 폐기할 대상이 아니라 새롭게 변모시켜 원상태로 회복시킬 대상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우리는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넓혀가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 교회는 ‘개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하는 편인데, ‘사회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부족합니다.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과 노력과 헌신은 아주 강한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악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민자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적인 믿음은 자신의 개인 구원과 성전 건축에 모아졌을 뿐,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외면해 왔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똑똑하고 근면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정의롭고 희생적이라는 평가는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균형 잃은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개인 구원을 위해 제사 드리는 일에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하는 일에는 게을리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어라 (사 1:15-17)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균형잡힌 신앙의 참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배가 살아 있다면 그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으로 이어진다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 부정과 거짓과 술수와 불의로부터 손을 씻는 것입니다. 탐욕을 경계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 혹은 부조리한 법과 제도에 의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입니다. 목소리 없는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 주고, 다리 없는 사람에게 다리가 되어 주며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셋째, 뜻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부조리한 법과 제도를 고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신의 힘으로써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이 점에서 얼마나 균형이 잡혀 있습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소처럼 개인 구원에게 집중하고 살아 오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연합 감리교회는 사회 구원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한인교회들을 통해 개인 구원에 대한 열정을 배워야 하고, 한인교회들은 미국 연합감리교회를 통해 사회 구원에 대한 관심과 의식과 열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속회자료>

'존 스토틀에게 배우는 제자도'(6)
"혼자만의 구원은 없다"(Salvation Is For All)
이사야 1:11-17

1.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526 장(통 316)
2.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3. 이사야서 1 장 전체를 읽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10 분)
4. 말씀의 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5. 말씀의 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2) 인간은 '시소 위에 앉은 존재'라는 정의에 대해 당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경우에 균형을 잡기 가장 어려운 영역은 무엇입니까?
 - 3) '개인 구원'에 대해 당신의 생각과 믿음은 어떻습니까?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길 믿음이 있습니까?
 - 4) '사회 구원'에 대한 당신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이 점에서 당신의 믿음과 삶은 얼마나 균형 잡혀 있습니까?
6. 기도
 - 1) 자신의 참된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2) 세상의 고난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7.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8.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508 장(통 270)
9.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